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4)

츠즈키보의 링, OE 방적 솜씨 - 다품종 소로트 생산형으로 전환

츠즈키보의 이즈모(出雲) 공장에서는 연구 개발용으로 앞 단계 공정으로부터 정방까지의 기계를 갖춘 시작(試作) 공장을 만들어,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제까지 “TS”라는 정번사를 생산하던 츠즈키보의 이미지는 크게 바뀌고 있다.

시험 제작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개발 소재가 여러 개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스테인레스 스틸을 심으로 한 코어 스판 얀이다. 타사의 스테인레스 스틸 얀의 경우, 세 올로 연사한 실의 한 올이 스테인레스 스틸 섬유로 된 구성이 많은데, 츠즈키보는 심의 스테인레스 스틸 섬유를 덮어주는 쉬스(sheath)가 완전히 커버링하는 타입의 원사이며, 그 만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를 리퀴드 코어 얀(liquid core yarn)이라고 하고 2005년 9월부터 고치(高知) 공장에서 본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즈모 공장은 면사의 종합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세계 각처의 각종 면화를 현재 연구 중이며,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장 내에 면화의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여 최종 제품이 어떻게 되는지를 의식한 소재 생산을 철저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 미이용면(未利用綿), 합섬 등의 원료의 버라이어티(variety)를 포함하여 링 정방기와 OE 정방기의 차이를 섞은 차별화사의 개발도 추진한다. 장차는 새로운 정방기도 도입하겠다고 한다.

개발은 차별화사뿐만 아니라 슬럽사의 형상이 직물에서는 어떤 표정을 보

일지를 퍼스널 컴퓨터의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럼으로써 원단의 표정을 보기 위하여 시직(試織)할 필요가 없어졌다. 개발뿐 아니라 마케팅에게도 유용한 장치이다.

그 동안의 독자적인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인 TNS 방식을, 앞으로는 어떻게 다품종 소량 생산형으로 바꾸느냐 등이 공정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공장으로 고객을 안내하여 함께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있으며, 새로 다시 태어나는 츠즈키보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